

학술

한국불교
불교학 70년

교학·사회 실천·제학문 융섭...

불교학은 불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한국불교학은 근대적 불교연구의 자각과 개척단계로부터 형성되고 정착, 나아가 새로운 전환 노력을 통해 그 지평을 확대해가고 있다. 한국불교의 선양은 물론 그 위상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것이다. 불교학의 발전은 학문 발전 외에도 불교교리와 사상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에 한국 불교학 발전의 70년을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본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불교학 - 한국 불자 지성인의 노력의 결실

정체성 형성의 시기

한국불교학에 대한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은 광복을 맞이하며 비로소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일제시대 연구와 차별화되는 한국불교학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일본불교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한국불교만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과제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에는 극심한 사회혼란이 지속된다. 이런 와중에 터진 한국전쟁은 불교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불교학은 전후 사회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1953년 동국대에 불교대학이 발족하면서부터 불교연구는 본격화된다. 아무래도 초창기 불교학 연구는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시 불교학자들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 일본식 학문연구 등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이 당시 대표적인 인물은 김익석, 김동화, 조명기 선생 등이 있다. 한국불교학의 1세대로 꼽히는 학자들이다. 그 중 1954년 발간된 김동화 선생의 <불교학개론>은 한국불교계의 최초의 불교학 입문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47년 첫 탈고 후 1953년 재탈고를 거친 이 책은 일본불교의 저술을 부분적으로 참조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한국불교학 형성과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다.

중국·일본과의 차별화 모색

1960년대는 1세대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불교학이 발전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한국 불교를 중국불교와 일본불교와의 차별화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김익석의 <화엄학개론>(1960년), 조명기의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1962년) 등이 대표적으로 한국불교의 화엄학, 그리고 신라와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을 짚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출간된 이기영 선생의 <원효사상>(1967년)도 '원효'라는 존재를 새롭게 조명하고 보



2004년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한국 불교학계는 세계여성불자대회,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세계교수불자대회 등 10여개의 크고 작은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세계불교학계 석학들의 연이은 방문과 논쟁은 한국불교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인도철학회의 '불교전통과 식문화' 세미나. 2000년대 이후 불교학은 기성 불교연구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와의 접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김익석



김동화

60년대 신라 화엄 등 정체성 수립
7~80년대 학회 및 학술단체 폭 넓어져
90년대 응용 및 실천불교 영역 확대
2000년대 '융합' 주제로 활발한 활동
전체 20여개 학회, 학문 폭 넓혀

살사상의 실천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기영 선생은 벨기에 루벳대학 유학 등을 통해 다른 연구방법을 보이기도 했다.

1962년에는 동국대 내 연구기관인 불교문화연구소가 개소해 불교학 발전의 토대를 쌓았다. 특히 불교학술지인 <불교학보>는 교계 최초의 불교학술지로 다양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불교학보> 1963년 10월 창간호가 나온 <불교학보>는 현재 71집까지 나온 상태다.

다양한 학회·학술지 나와

1970년대에는 다양한 학술지가 발간되며 이러한 문호가 더욱 넓어졌다. 한국불교학이 정착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1973년 7월 동국대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회가 창립됐다. 한국불교학회는 이어 1975년 학회 학술지인 <한국불교학>을 펴냈다. 이는 고강사까지 연구발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한국불교학회는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지관 스님·장원규·우정상·이종익·홍정식·황성기·이재창·김영태·김운하·원외범·정태혁·이기영·서경수·김합배·박성배 선생 등 다양한 학자들이 불교학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1세대로 꼽히는 김동화 선생은 <불교유사사상의 발달>(1970년), <불교윤리학>(1971년), <선종사상사>(1975년), <불교교리발달사>(1977년) 등을

펴내 인도불교에서부터 한국불교까지, 철학·윤리·교리·사상사 등 광범위한 연구의 토대를 쌓았다. 지관 스님은 금석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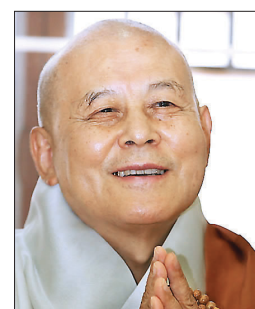
1980년대는 한국불교학의 연구층이 두터워지는 시기였다. 동국대 불교대학과 각 대학의 철학과에서 배출한 석·박사와 함께 해외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소장학자들에 의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됐다. 동국대 이외의 대학에서도 불교학 연구가 점차 활성화됐다. 채인환·김인덕·목정배·이영자·고익진·권기종·서운길·신현숙·김영길·윤호진·서성원 선생 등이 불교학 연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개방·세계화 조류 반영

80년대 이후의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불교학 연구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었다. 80년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와 함께 경제성장, 개방과 세계화 등 광범위한 사회변화에 따라 불교학연구도 변화했다. 그동안 불교학 연구가 역사·문화 중심으로 혼 교조적이고 교조주의적이거나 혹은 민족주의 성향을 띠었다면 이 당시 불교학은 다학문·다문화적 접근과 개방을 시도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이 당시는 '민중불교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였다. 이에 불교교리를 노동·빈곤·소외·권위주의·경제윤리 등 사회문제와 관련지어 재해석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불교학이 다른 학문분야와의 연결성을 찾던 시기



지관 스님



이기영



고익진



박성배

였음은 당시 학술대회 주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가 1984년 5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개최한 불교학술세미나 주제는 '불교와 유전공학'이었으며, 1986년 동국대 개교 80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도 '불교와 제과학'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불교학이 응용과 실천 분야로도 나가는데 시발점이 됐다.

응용·실천영역 본격 확장

1990년대에는 응용불교학 또는 실천불교학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불교학은 사회실천 영역으로 확대됐다. 1990년대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과에는 '불교사회경제'·'포교론'·'경주캠퍼스 불교학과'에는 '불교문화재 관리론'·'불교와 현대과학'·'불교와 정보환경' 등 강좌가 개설됐다. 이런 움직임은 불교대학원에 불교사회복지학과와 장래문화학과 문화콘텐츠학과를 개설하고, 불교문화대학원에 장래문화학과·불교상담학과를 두는 것에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996년 10월 개교 90주년을 기념해 열린 세계불교학술회의는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열렸다. 이 세계학술회의에서는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조명, 종교다원주의의 사회와 불교, 지구화시대의 윤리와 불교, 자연·환경·생명과 불교, 한국불교의 세계화 등으로 분과별 발표가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논문 19편이 발표됐다.

인문학 차원에서 불교학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동국대 외 일반대학에서의 연구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이런 와중에 1999년 불교학연구회가 창립된다. 이는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소장학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였다. 불교학연구회는 정기·월례 학술발표,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특히 해외 및 국내 여타 대학의 소장학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 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이와 함께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근대불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역사학, 불교학, 종교학 등에서 자생적으로 등장해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최병현은 일제하의 불교에 대한 성격, 김상현은 3·1운동과 한용운, 보광 스님은 백용성, 양은용은 불교개혁 사상, 전보삼은 한용운, 채상식은 범어사 등을 연구했다.

사할, 문중 등 근현대불교 고승과 유관한 승단의 연구기관 설립이다. 성철문도회는 1996년에 성철선사상연구원을 발족했고, 백용성의 유훈을 구현하는 대각회는 1998년에 백용성과 근현대불교를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대각사상연구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경허, 만공의 연구 사찰인 수덕사는 1999년에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을 만들었다. 이처럼 고승과 연구가 있는 사찰, 문도들이 고승의 연구를 추종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진작시켰으나, 특정 사찰이나 문중을 중심으로 진행된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대한불교 천부조계종 (天符曹溪宗)



대한불교천부조계종
종정 무불

본 종단은 불기2559년 1월 28일 창종한 종단(宗團)으로 환검단군 대성존(桓檢壇君大聖尊)을 고대불교(古代佛敎)의 교주(敎主)로 석가세존(釋迦世尊)을 근대불교(近代佛敎)의 교주(敎主)로 석가세존으로부터 28대조사(祖師)이고 중국 선종(禪宗)의 조조(初祖)되시는 달마대사(達摩大師)로부터 목조선종(木祖禪宗)을 이어받은 6조 혜능대사(慧能大師)를 종조(宗祖)로 하여 고대불교(古代佛敎)의 교주(敎主)이신 환검단군대성존(桓檢壇君大聖尊)께서 깨치신 진리의 핵심인 일시무시일(一始無始)→ 용변부동본(用變不動本) 일종무종일(一終無終)→ 천부인(天符印)세계의 진리와 근대불교(近代佛敎)의 교주(敎主)이신 석가세존(釋迦世尊)께서 깨치신 핵심진리인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적정열반(寂靜涅槃) 3법인(法印)을 근본교리(根本敎理)로 봉체(奉體)해서 이화세계 불국정토(理化世界 佛國淨土)를 장엄함을 종지(宗旨)로 하여 부모 형제 처자 권속간에 우리 이웃간에 우리 무주간에 이 세상에 아름답게 회향(廻向)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도의 열정으로 목말라 발심 출가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는 본 종 단찰 무불선원에서 입법하여 수계 한 다음 소정의 과정을 수학(修學) 수선(修禪)하여 증서를 수여함과 동시에 훌륭한 스님으로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고 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되어 정발 보람있는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자격증서를 다 갖추 드립겠습니다.

본 종단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무불스님」 검색하세요.

대한불교 천부조계종

총무원 : 경남 양산시 삼호로 74 대운산 무불선원
전화 055)388-3878 / 팩스 055)388 3878 / H·P 010-3854-8107

무불스님의 불교핵심강의

불교핵심을 관통하는 명쾌하고 담백한 강의에 동참하십시오!!



무불선원에서 무명의 한 격외선객이 여러분을 감히 초대합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제가 포대화상이 되어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는 진귀하고도 푸짐한 선물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빼놓고선 설할 법이 없으니 마음이 팔로 모든 진리의 근본이고 만법의 근원이며 자초지종이니 부처와 보살과 신중 및 부모조상님도 마음을 떠나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의 마음과 현상의 마음을 요단했을 때 내 청도 내기하고 가는 것이요 내 부모 조상님도 자연히 극락왕생 하시는 것입니다. 무라치고 요령 흔들어가며 아무 뜻도 모른 속성 좋으니 꺼지니 하는 염불기도 없이도 내가 깨닫고 노력하는 만큼 모든 업과 가지 가지 액살도 소멸됨은 불문요 또한 업의 실체가 공함을 통달해 수미산 같은 업을 가진 그체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원을 자기의 동량 북

대운산 무불선원

유튜브에서 「무불스님」 검색하세요.

경남 양산시 삼호로 74 대운산도사 푸르지오아파트 103동 703호
전화: 055)388-3878 / 010-3854-8107

문화재

한국불교
문화재 70년

학문 통해 불교 대중화 견인하다



2011년 12월 조선왕조 의궤를 환수 직후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린 국민헌영행사에서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부처님 전에 환수를 고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경관 조사 장면. 2007년 개소한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불교문화재 만의 특성에 맞는 연구와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수영 진홍섭

국보급 문화재 중 40%가 성보
문화재 수탈 역사는 불교 수난사
황수영 등 원로, 보존 토대 닦아
일본 등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과제
민족문화유산 보존에 불자 힘모아야

연구가 지속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나의 문제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고승과 유관한 연구원의 활동은 개별 사찰들이 주
관하는 근현대불교의 학술세미나 활성화로 이어졌
다. 고승 연구를 위주로 추진되었는데 전등사는 서
운, 범어사는 동산, 통도사는 구하·경봉·벽안·월
하, 송광사(보조사상연구원)에서는 효봉·구산, 봉
선사는 월초·운허·명허·운경 등을, 진판사는 백
초월, 백양사는 만암, 화엄사는 도광, 건봉사는 정제
성, 선운사(백파사상연구소)는 박한영, 수덕사는 경
허 등의 학술 행사를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불교학
회, 불교학연구회를 비롯해 한국선학회, 인도철학
회, 정토학회, 보조사상연구원, 대각사상연구원, 성
철사상연구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사회문화연구
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한일불교문화학회, 전자
불전연구소, 고려대장경연구소, 국제불교문화사상
학회, 한국불교상담학회 등 20여개의 학회들이 활동
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불교연구는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다. 그 테마는 '융합'이다.
사회의 여러 발전상과 연계한 불교의 새로운 가능
성을 찾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자연·환경·생태문
제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발전을 선도하
고 있다. 또 인터넷과 연계해 다양한 자료의 아카이
브 사업이 진행돼 연구의 질과 양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불교학 100년사>
에서 "불교학은 선각자들의 구도적 열정과 개혁의 피
땀이 어린 인고의 궤적이며, 근대 한국불교가 시대적
혼돈 속에서 이룩해온 자각과 전환의 장중한 역사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 자랑스
럽고 소중한 역사인 것이다" 고 의견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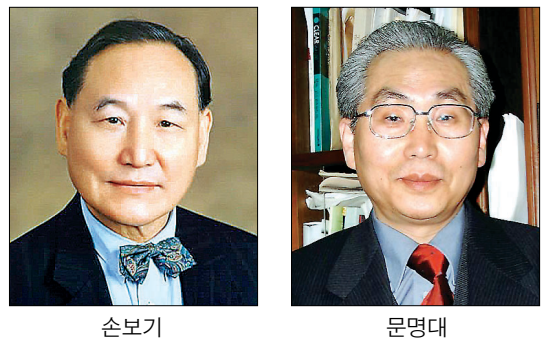
성보문화재 - 민족문화유산이자 신앙대상으로

한국불교는 17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
족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마침내 민
족문화의 뿌리와 줄기가 되었다. 불교 문화재는 민
족 문화유산이면서 한편으로 불교 성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화재 수탈 심각... 환수운동 전개

과거 술한 외세의 침략과 전쟁이 있었던 우리나라
는 수많은 문화유산의 수난을 경험했다. 불교문화재
배경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문화유산의 수난은 불교문화유산의 수난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전
국 각지에서 문화재 수탈이 극심하게 이뤄졌다.

남북 분단의 해방 공란 남쪽을 차지한 미군정(美軍
政)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곧바로 일어
난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문화재 파괴와 유출
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불교문화재의 피해
상황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서 2003년



손보기 문명대

부터 2007년까지 간행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당시 남한지역에 존재한
969개 사찰 중 20%에 이르는 200여 곳이 소실되고
파괴됐다. 북한 지역은 205곳 중 약 70%인 141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문화재 반환 운동 미완으로 남아

1960년대 이후는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벗어난 신
생 독립국가 그룹이 약소국가이기를 거부한 저항의
시대였다. 그래서 약탈 문화재 반환 운동이 서서히
머리를 들었다.

이러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앞선 한일회담
에서는 일본의 약탈 문화재 반환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이 요구한 문
화재는 조선총독부가 내보낸 고분 출토품과 통감과
종독이 빼돌린 유물 2,060점 등 모두 4,479점이었
으나, 일본이 내놓은 목록대로 1,432점이 돌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사유 문화재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합
의한 의사록에 따라 자발적 반환으로 느슨하게 풀려
놓게 된다. 현재는 문화재제자리찾기 등 시민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미술사학 발전 문화재 보존에 일조

1960년대에는 고고미술사가 자리를 잡으며 불교
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문화재 복원과 보
수,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이

어진 흐름이었다. 그 1세대에는 김원룡(서울대), 손
보기(연세대), 진홍섭(이화여대), 황수영(동국대) 박
사가 꼽힌다. 특히 불교문화재에서는 황수영 박사를
빼놓을 수 없다. 개성박물관장으로 있던 고유섭 선
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황수영 박사는 한국미술
사학을 개척한 선구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진홍섭
선생과 최순우 선생까지 개성 3걸이라 불렀다.

황수영 박사는 석굴암 등 경주 지역 신라문화재의
조사와 발굴 복원을 비롯해 서산마애삼존불상과 팔
공산 제2석굴암, 문무대왕 해중릉 등을 복원했다.

이후 정영호·맹인재·정양모 선생에 이어 문명
대, 안취준, 강우방, 이성미, 김리나, 강경숙 등의 2
세대에서 본격적인 미술사학이 꽃을 핀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2010년 4월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전체 국
보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224점으로, 국가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제외하고 종단에서 소유하
고 있는 국보는 총 123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국보 314점의 39.17%에 달하는 수치다.

의례·의식·문화까지 가치 조명

2009년 6월 영산재가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이
은 9월에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4월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2013년 12월 수륙제가 중요무형문화재 127호로 지
정됐다. 이는 불교의 무형문화 또한 보존해야할 가
치가 충분함을 알린 것이었다.

최근 유네스코는 1995년에 고려대장경을 보존하
는 해인사 장경판전과 불국사 석굴암을 세계문화유
산으로 지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륵사지 정림사
지 등을 포함한 백제문화유적지구를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해 온 한국불교는 우수한 문화민족으로서 민족
문화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
다. 한국불교의 이러한 문화적 과제를 세심 인식하
고, 이를 위해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광복 이후 대표적인 논쟁, 무엇이 있나?

◇석굴암 원형 논쟁

석굴암에 대한 논쟁은 지난 1969년 5월 공
학박사인 남천우 교수가 <신동아>에 '석굴암
원형 보존의 위기'를 기고하면서 시작됐다. 남
교수는 황수영 박사의 주도로 현재의 모습으
로 복원된 석굴암에 대해 '당시 석굴암 보수는
개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영훈씨가
반박문을 발표하고 뒤이어 문명대 교수가 가
세하면서 석굴암 원형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
붙었다.

◇돈점 논쟁

1981년 당시 조계종 중징이던 성철스님이
<선문정로(禪門正路)>를 세상에 내놓으며 '돈
오점수와 돈오둔수'의 논쟁은 사실상 시작됐
다. 성철스님은 보조의 돈오점수가 선문에서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
기능을 했다고 지적했다.

<선문정로>가 나온지 10년이 되는 1990년
에 가서야 비로소 '돈오둔수와 돈오점수'의
문제가 학술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이 주제에 대해 불교계 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다.

◇조계종 종조 논쟁

조계종 종조논쟁은 이미 30, 40년대부터 다
양한 형태로 불거졌지만 1954년 이승만대통령
령의 '불교정화(태고종에서는 법남으로 부른
다) 유지 이후 본격화됐다. 비구 대처 분류 후
조계종은 보조 지눌스님을, 태고종은 태고 보
우스님을 새로 종조로 인정했다. 이후 종조논
쟁은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팽팽한 긴장 속에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다.

◇'여래상은 불교인가'

비판불교가 학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6
년 6월1일, 일본에서 열린 인도학불교학회 학
술대회에서다. 고마자와 대학의 마츠모토 교
수가 '여래상은 불교가 아니다'는 논문을 발
표하면서 학계의 비상을 관심을 모은 것이다.
1994년 동국대 해원스님이 마츠모토 교수의
<연기와 공-여래상사상 비판>을 번역한 <연
기와 공>을 펴내며 소개했다.

◇무아설 & 비아설

원시불교에서 무아(無我)와 비아(非我)가 달
리 서술되면서 무아설과 비아설을 각각 구분해
보는 학자들의 의견과는 반대로, 불교의 '무아
(無我)관'을 무아사상 혹은 비아(非我)사상, 혹
은 인도의 자아(自我)사상의 일종으로 보려고
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www.emile.kr

신라 왕정에 울리는
창조의 울림

신라로 경주 2015 와 함께하는

신라 소리축제

2015. 10. 8(목) - 11(일)
낮 10:30 - 밤 10:30

경주 첨성대 잔디광장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

주최 BBS 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2015/고/운/사/사/찰/음/식/문/화/제

자연의 지혜를 담은 고운 반효음식

일시_ 2015. 10. 10 (토) 장소_ 고운사 경내

고운사 산사음악회

• 10월 10일 오후 3시 화엄문화테мп관
• 초청가수 : 조항주, 우연이, 최석준, 서지오, 박진석 외 다수

|주최| 고운사 |주관| 사단법인 한국사찰음식문화협회
|후원| 의성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안동 MBC,
고운사 본말사 신도회

연계행사 김중호 사진전
※ 본 행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 본사 고운사 증무소 : 054-833-2324 www.gounsa.net